

주님의 사랑의 숨결이 머무는 곳

Sabah, 말레이시아

Kota Kinabalu Malaysia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가정 기도편지 Vol 9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더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마음 깊이 송구합니다.

정신 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함께해 주시고,
잊지 않고 중보해 주신 그 사랑과
헌신에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저희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고백드리고자 합니다.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Kota Kinabalu

Malaysia

01_행복축제

작은 도시에 부여된 큰 은혜

전교민 수 6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새생명 행복축제’를 열며 모두가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장년 14명, 어린이 11명, 중고등부 1명이 교회를 방문했고, 3-4가정이 등록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건상 당장 출석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02_유스코스타 방문

아이들 안에 시작된 변화

이번에 KL에서 열린 유스 코스타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예배가 낯설기만 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손을 들고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예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매년 꼭 다시 오자”는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03_수요 신약산책

말씀이 양식이 되는 시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과 기도라고 믿기에, 이번 학기에는 신약 전권의 개관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향해, 어떤 상황 속에 기록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현장,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04_단기선교

마르두 마을까지 복음을

예년과 달리 비시즌 중 두 팀(에어부산 신우회, 신일교회 청년부)이 방문해주셨고, 함께 코타 마르두 지역의 '빅토리 처치'를 섬겼습니다. 아이들과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족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잊지 못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 교회에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05_말씀사경회

다시 복음으로

올해도 부족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말씀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광명의 '주님사랑의교회' 설주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과 전도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더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06_가정의 달

가정과 다음세대를 위한 작은 노력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회학교 연합수련회와 어린이날 한글학교 사역을 신일교회 청년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가정과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찍어드리는 가족사진도 성도 가정에 귀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07_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1_사역에 관한 이야기

얼마 전 제직회를 진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생각과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기도 하고, 때론 뜻밖의 질문이나 오해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개척 3년차를 지나며, 견고히 놓은 주춧돌 위에 하나씩 사역의 벽돌을 쌓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실체가 되고, 그 복음이 삶 속에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해와 흔들림이 더해지는 듯한 시간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역이 사람의 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과정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지혜롭게 분별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_가정에 대한 이야기

일전에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하린이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며 무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미 작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타지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민 사회 안에 있지만, 때론 누구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나눌 수 없는 외로운 자리임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잘 지내는 듯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드리우는 외로움과 부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알기에,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묵묵히 감당해가고자 합니다. 외로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 굳게 서서 서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민, 이민혜, 이하린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

3_재정에 관한 이야기

이곳에 처음 올 때만 해도 가진 것이 거의 없었기에, 교회의 형편과 저희 가정의 현실이 맞물려 사역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헐벗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사역과 가정의 필요 가운데 꼭 필요한 차량도 중고로 은혜롭게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감당해야 할 분할금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여유롭지 않아 당장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때에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곧 집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연세로 계약을 하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집세가 오르지 않고, 이전처럼 무난하게 계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때에 맞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기도 하나** 단기선교(7/13-18), 나니아 연대기 프로젝트(8/12-16), 하반기 사역 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 기도 둘**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 전쟁 속에서도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도록
- 기도 셋** 집 재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임대료 인상 없이 필요한 재정도 채워지도록
- 기도 넷** 중고 차량의 월 납입금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 기도 다섯** 가족 모두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감당하도록
- 기도 여섯** 하린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사역교회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lovekkc.com) 파송단체 IGC

재정동역 카카오뱅크 3333-04-4001931 이수민

미션펀드 <https://go.missionfund.org/kkchurch>

E-mail 이수민 jlm6987@gmail.com

이민혜 mymh4860@gmail.com

카카오톡 이수민 jl6987 / 이민혜 mymh486

